

檢査하고 投藥 하자



소진탁

검사를 필요없이 구충제를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근거는, 한국사람의 약 90%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으므로 10%의 음성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노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데 두고있다. 언뜻 보기엔 아주 타당한것 같다. 누구나 다 구충제를 사용해도 결국 약 10% 밖에 오차가 없겠기 때문일것인데 따치고 보면 기생충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그와같은 의견이 나온 줄 안다. 일반적으로 기생충하면 회충(蛔虫)만을 머리에 두고 또 그동안 많이 사용해 오던 “산토닌”이나 “피케라진”을 복용하면 체내에 있는 모든 기생충들이 구충되는 것으로 과신하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왜 사전

검사가 필요한지를 적어 보기로 한다.

첫째, 동물 또는 식물에 붙어사리하는 기생충은 문헌상 기록에 따르면 약 2,250종이나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된 인체 기생충은 약 45종에 이른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용모나 성품이 천태만상이거늘 하물며 생물학적으로 종류가 다른것들이기 때문에 구충제(驅虫劑)에 대한 감수성(感受性, 受容性)이 각기 다르다.

예를들어 “산토닌”은 회충 이외의 다른 기생충에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토닌”만을 복용하여 다른 장내 기생충까지 구충한다는것은 불가능 한것이다. 한국사람의 90%가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것은 위의 약 45종류나되는 기생충 종류 중 한가지 또는 몇가지가 감염되었다는 뜻이므로 무슨 구충제 한가지 만으로 그 어느것이든

구충된다는 약품은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생충은 검사 과정을 거쳐 그 감염되어 있는 종별을 확인한뒤 이에 적합한 약제를 사용해야 될 것이다.

둘째, 기생충은 한군데서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다. 인체에 기생해서 해를 주는 벌레들이 그 종류에 따라 기생위치를 달리하고 있다.

간, 폐, 뇌, 근육, 혈액 및 혈구 임파선, 피하, 소화관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고된 45종류 중의 80%는 소화기 계통에 기생한다. 소화기 계통이라도 한군데가 아니고 구강(口腔)으로부터 항문(肛門)에 이르기까지 그 분포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이면 아무데나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생활조건에 적합한 장소만을 골라서 사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구충제는 이 기생위치를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가령 소장이나 대장에 기생하는 종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구충제가 위(胃) 또는 기생위치로부터 너무 윗부분에서 분해(分解)되면 약효를 상실케 된다. 오히려 장벽에 흡수되어 인체에 해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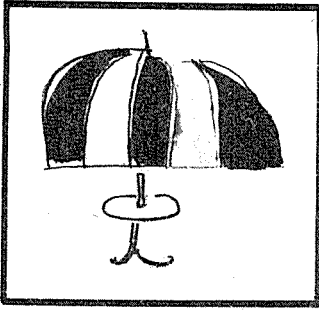
되도록 기생충이 사는 그 위치까지는 변하지 않고 내려가야 할 것이다. 한국에 특히 많은 기생충 중 회충은 소장에, 편충은 대장에 기생한다. 그러므로 특종의 기생충에 집중해서 작용토록 하기 위하여 교감에 넣어서 또는 코팅해서 복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각기 목적하는

부위까지 가서 유효성분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있다. 소장 상부에 기생하는 기생충 구충을 위하여는 위액으로 소화되어 부서질 수 있는 교감이어야하고 대장 기생충에 대하여는 교감 또는 부형제가 위 또는 소장 상부를 통과하는 중에 부서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관(腸管) 이외에 각 장기(臟器)에 기생하는 것들을 살충하려면 소화관에서 구충제가 일단 흡수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된다. 그러나 장관내에 기생하는 것들을 제거하는데는 되도록 장벽으로부터 흡수 안되고 기생충에만 작용하는 약제라야 한다. 구충제가 흡수되면 오히려 장기에 중독을 이끄는 경우가 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구충제는 특정의 기생충에 따라 각기 화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과정을 거쳐서 그 종별을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므로 공연한 부작용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경제성(經濟性)도 고려하게 된다. 구충제 중에는 한번 복용하는데 수백원에서 천여원 되는 것까지도 있다. 그나마 한번 복용하고 다시 감염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큰 영향이 없겠으나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食習慣)이 재감염(再感染)의 기회를 얼마든지 줄수 있는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아서 한해에 몇차례씩 복용해야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니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은 극히 당연하



다고 본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피페라진” 등 구충제에 있어서도 크게 보아 예외 일수는 없다. 매년 봄 가을 한국기생충박멸협회에서는 전국의 7백여만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검변(檢便)과 투약(投藥)을 1969년 이래 계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 층의 기생충감염률은 일반 주민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었는데 1974년 추계 자료에 따르면 장내기생충종류(腸內寄生蠕虫類)의 감염률이 피검인원 5,390,877명중 총란보유자는 2,539,133명(47.1%)이며 회충 31.0%, 편충 28.5% 기타등으로 나와있다. 현재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구충제는 “피페라진”제인데 만일 검사하지 않고 학도 전원에게 투약한다면 다른 기생충에는 구충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 할것은 둘째로 하더라도 회충에 감염되지 않은 3,695,586명은 아무런 까닭없이 약만 복용했다는 결과가 된다. 매인당 30원 썩이라고 할 때 실로 1천여만원의 재산상 낭비

를 하게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사용해오는 거의 대부분의 구충제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들이니 국고의 낭비를 방지하는 뜻에서도 기생충의 사전 검사는 필요할 것이다.

넷째 역학적인 견지에서도 기생충의 사전검사는 필요하다. 한 지방에 어떠한 기생충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면 먼저 통계적 자료가 필요하다. 즉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생충감염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기생충 만연의 요인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기생충박멸협회가 45종류의 기생충 가운데서 그 박멸의 첫목표를 회충에 돌리고 지금까지 다른 기생충에 우선해서 구충과 예방사업에 치중하게 되었던것도 막연한 착상에서가 아니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조사 보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비중을 가린바 국민보건이란 대국적 견지에서 기생충을 없애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열로 따진다면 회충 구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학술적 자료가 뒷받침 하였다고 본다.

그동안의 학도검변사업은 회충 이외의 기생충도 그 만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의 기생충 구충및 예방사업을 집행함에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크기는 정부에서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도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고 본다.

다섯째 기생충검사는 계몽(啓蒙)과 보건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

어느 지방에 무슨 기생충이 얼마나 있나를 숫자적으로 파악 한다는 것은 계몽교육의 우선 순위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자료가 없다면 특히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와 같은 풍토적성격을 지닌 기생충감염의 예방교육에 차질을 갖어올 것이다.

예를들면 간디스토마 만연지역에서 민물고기에 대한 교육은 하지않고 폐디스토마 중간숙주인 게, 가재의 생식만을 하지않도록 강조한다면 하나의 시행착오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의 근성은 다소나마 자기가 노력을 경주할때에 그 사물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대변을 받는다는것은 돈 드는 일 아니지만 누구나가 싫어하는 것

이다. 일단 이 귀찮은 일을 즉 비닐봉지에 자기손으로 대변을 떠 옮겨야만 검사결과가 더욱 궁금해지는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몸속에 무슨 기생충이 들어 있다는것이 판명되면 그 누가 구충(驅虫)을 바라지 않으리요, 돈이 들더라도 구충하고자 할 것이며 또 앞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것이다. 과거보다도 더 개인위생 환경위생에 힘쓸것이니 기생충검사야말로 개인의 보건과 국민후생을 위해서도 기초적인 필수 과정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생충예방사업의 완성을 기하려면 선검사(先檢査) 후투약(後投藥)의 원칙을 고수해야 될 것이다.

<필자=연세대의대 기생충학교수·기생충박멸협회 부회장·의박>

땀

땀구멍	230만개
땀의양(여름, 앉아있는 사람 기준)	1.5~2l
하루 최고 땀의 양	7~10l
비중	1,002~1,006
PH	7.0~7.9

소화에 걸리는 시간

전 분	2~3 시간
지방질	4~5 "
단백질	3~4 "
음식이 대변이 되어 배설되기 까지 약 1일 걸린다. 대장(大	

人体의 수학

腸)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길다.

